온유하기 경쟁에서 등수 안에 들기

(민12:1~16)

1.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1.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온유하기 경쟁에서 등수 안에 들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온유하기 경쟁에서 등수 안에 들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온유하기의 경쟁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온유하기

경쟁에서 등수 안에 들라'는 얘깁니다. 등수도 등수 나름입니다. 3등 안에 드느냐, 5등 안에 드느냐, 100등 안에 드느냐의 등수의 한계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상위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온유하기에서 등수 안에 들기는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야 되거나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하는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은 온유하기 경쟁에서 너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의 경쟁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온유하면 하나님이 내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없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시시한 이유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꾸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건강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자식이 문제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편이시면 삶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편이 아니십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고, 온유하기 경쟁에서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내 상태 때문에 내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에 따라서 내편이 되어주시려면 내가 온유해야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에 전세가 힘들어지니 참모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걱정하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에이브라함 링컨의 신앙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내가 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으라는 에이브라함 링컨 말이 맞는데, 내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내편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더 온유한 사람입니다. 등수가 더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온유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고 있던 종족 중에 구스(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세가 그 흑인들 사이에 있던 여자를 재취(두 번째 아내)로 택합니다. 광야에서 피신생활 할 때에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아내로 삼아서 두 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십보라가 아마도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취 자리에 흑인 구스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첫째 남동생인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고, 둘째 남동생인 모세는 이스라엘 선민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

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과 절대 통혼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리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있는 선민이 아닌 다른 종족 흑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므로 미리암으로서는 마땅히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를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성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주도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아론은 참여해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누나가 하는 말이 맘에 안 들어서 한마디 할 수 있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하는 일은 다툼을 말리고 격앙된 감정을 달래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게 하며 중재를 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하시며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모세에게 따지는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나병'은 요새는 피부병의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천벌'로 말이라도 무섭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에 천벌을 내리십니다. 둘을 데려다 구스여자를 취하게 된 내막이 있으면 잘 설명하고 납득하게 해서 화합하면 되는데 그냥 천벌을 내려버리고 마십니다. 그렇다고 미리암이 천벌을 받을 만큼 나쁜 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암이 별로 나쁘지 않은데도 천벌을 내리실 정도로 모세의 편이 되어서 모세에게 쏠려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심하게 쏠려 계시므로 미리암의 행동이 멀리 떨어져있는 악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라고 하는데 미리암의 비난의 심층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선민들 사이에서 갖고 있었던 독보적인 지위에 대한 질투심과 시샘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세를 향해 갖고 있는 나쁜 심정에서 나오는 비난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 세 사람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는 천벌을 내리시고 왜 모세의 편을 드시는 것입니까? 그 답을 3절에서 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나우'라는 단어로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낮고 비천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이 들어있는 온유함 때문에 모세 편을 드셨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한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 편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온유함의 경쟁에서 상위 등수에 포진할 수 있기 위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을 알려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는 구절과 연결을 해야

알 수가 있는데 '모세의 일상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신인동형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는 애기는 '하나님의 5감관이 모세의 삶에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보시지는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보시면서 들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온유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5감관이 작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앞의 맥락인 탐욕과 불평의 이야기에서부터 계속 발전되어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염두에 둘 때에 도대체 모세의 온유함은 모세의 성격이 온유하게 타고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듯하다'라는 것으로 수용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욱하는 성질도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의 반대가 거칠고 모진 것인데 애굽의 법을 다 알면서도 자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정도였던 사람입니다. 즉, 모세가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특정 대상을 향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걸 그룹의 인터뷰를 오래 전에 본적이 있는데, 진행자가 '남자 앞에서 평소와는 판이하게 다른 행동과 말을 하는 멤버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멤버를 지적합니다. 그 멤버는 남자만 나타나면 행동과 말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자 맞춤형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에 뒤에서 들이받은 차를 향해서 화를 내며 가다가도 운전자가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면 화를 내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디 다친데 없습니까?'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 맞춤형의 마음가짐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맞춤형으로 바뀐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맞춤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고 들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미리암이 자신을 비난한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매순간 순간 5감관을 작동하시면서 깊이 개입해 계신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비난을 받을 때에 욱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도대체 누나 미리암이 내 사정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할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암의 비난에 대해서 반응하기에는 5감관을 작동하시면서 자기 앞에 와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더 앞서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미리암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 누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도 하나님이 5감관을 작동하시면서 앞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 우선적인 자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맞추어진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을 외부에서 다

른 사람이 볼 때에는 온유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따지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재취를 얻은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는 취지를 생각해 봐도 이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 종족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맥락을 살펴볼 때에 백성들의 탐욕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가 외로웠을 것입니다. 육체의 5감관으로 파악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외로웠을 때에 이 구스 여자가 이 신앙에 가까웠던 여자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말이 많았겠지만 모세는 묵묵부답으로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온유함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부드러움과 따듯함으로 다 수용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용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육체의 5감관으로 포착되는 어떠한 대상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반응하느라고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반응할 틈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자기를 낮추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를 가난하다고 보고 못났다고 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다보니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 자기는 못날 수밖에 없고, 낮을 수밖에 없고, 비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결국 이 본문의 설정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더라.'라는 말은 5감관을 작동하시는 하나님을 툭 던져놓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상대하는 것에서 모세의 하나님 맞춤형 온유의 특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그 어떤 사람이 칭찬해도,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둘러싸도 육체의 5감관으로 포착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육체의 5감관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식할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온유가 커지고 온유의 경쟁에서 등수가 상위에 포진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도 더욱더 절대적으로 굳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구스 여자를 재취로 얻은 것도 이 본문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모세가 나를 제일 먼저 상대하는 가운데 구스 여자가 재취로 얻어지게 될 것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모세를 비난하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이 말은 형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들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뚜렷하고 확실한 존재로 느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얘기한 것으로 이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탐욕에 대한 맥락에서 볼 때에 탐욕의 반대말은 금욕이 아닙니다. 81세나 된 모세가 육체의 5감관을 따라서 구스 여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탐욕의 반대가 금욕이 아닌 온유입니다. 탐욕은 5감관으로 포착되는 대상들을 좇아서 하나님을 등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인 온유는 5감관으로 포착되는 그 대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 온유가 나타나는 근거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전염되면서 나타난 일 중에 하나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도 하고 성생활도 하고 자식도 낳고 휴가도 가고 여가도 즐기고 경제생활도 하고 식생활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됩니다. 금욕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5감관으로 포착하는 맛있는 음식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죽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으로 가서 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맛있는 것을 주고 싶어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어떨 때에 뚜렷하게 보입니까? 지상에 내 육체의 시각에 방해가 될 만한 빛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내 주변상황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이 땅에서 5감관으로 보이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암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온사인 빛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 생활화를 모든 순간에 빼곡히 밀어 넣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순간순간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이 모든 순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해나갈 때에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가운데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5감관을 작용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면 나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뚜렷하게 보는 사람을 항상 편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편이면 무조건 나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

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자식이 저모양이라고, 집안이 안 좋다며 불행의 핑계를 대지 말고 십자가 생활화로 삶의 암흑을 만듦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대상보다도 우선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하나가 되는 일에 전념하는 온유함의 경쟁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 내편을 드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편드심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울려고 해도 울 일이 없고, 화를 내려고 해도 화낼 일이 없고, 억울할 일이 없고, 슬플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서 붙을 때에 이 지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넘겨주시는 뜻만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뭘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십자가 생활화로 암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보임으로 온유함으로 이 삶이 지배되고, 내가 온유함의 경쟁에서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의 행복의 길은 그리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자수 판에 수놓듯이 함으로서 이 지상전체의 삶을 암흑으로 만들어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을 뚜렷하게 봄으로써 온유함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내편이 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